

건강 칼럼

치아교정, 심미적인 목적 아닌 건강상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치아교정은 치과 치료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정기적인 검진 및 생활 속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치료이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치료 효과로 인해 꾸준히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은 부정교합과 고르지 못한 치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으로, 치아의 심미성뿐 아니라 기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교정을 오로지 심미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치아교정을 오로지 외모 고만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고교정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교정을 해야 할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다가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아교정은 어떤 이들에게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치열이 나쁜 경우 외관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간이



이 선희
다빈치치과의원 원장

부족해지면서 치태, 치석이 쌓이기 쉽다. 치아가 겹쳐지면서 자란 경우에도 칫솔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석구석 양치질이 어려워 치석이 잘 생기는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치주염에 노출될 수 있고 방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뼈가 녹아내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치아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옆에 있던 치아가 빈공간 쪽으로 쓰러져 높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치아교정을 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은 유치가 탈락하면서 영구치가 자라는 시기에 치아가 잘못 나가거나 쓰러져서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치열에 문제가 생기고 교합력의 방향이나 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치주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치아교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층의 경우 노화가 시작되면서 치열에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치아가 앞니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근심이동(Mesial Drift)이라고 하는데, 충치나 풍치 등으로 받치를 하고 난 다음 빈공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쏠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빈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전체 치열이 앞으로 점점 쏠려 특히 아래 앞니가 노화에 따라 점점 비뚤어진다. 단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해당 부분에 열증이 시작되면서 치아뼈가 내려가고 어느 순간 앞니까지 뿌리가 드러나거나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결

손치로 주변치아가 쓰러진 경우 치아교정을 통해 쓰러진 치축을 바로 잡아 교합을 회복시키고 임플란트 보철 등으로 빈자리를 적절히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빈자리 없이 치열이 앞으로 쏠려 앞니가 비뚤어진 경우 교정을 통하여 가지런한 치열을 회복하여 치주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성장이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치아교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치아교정은 요인과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적절한 교정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풍부한 치료 경험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보철과 무명 교정까지 함께 다양한 통합적 치료 방법을 통해 개별적인 맞춤 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관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치과를 방문해야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기고문

정부의 2023년 농산물 생산·유통합조직 추진방향

농촌 생산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생산비증가 및 수익성감소 등으로 원예농산물 생산여건은 불안정해지고, 재배기술 및 재배시설의 혁신, 스마트기술의 활용, 소비시장 선호에 적합한 생산이 요구되고, 시장환경, 유통구조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통해,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합조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생산농가들이 상호협력하여, 농

산물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영농 및 유통조직에 통합출하하도록 하고, 농산물 생산·유통조직이 정한 품질규격, 출하방식, 판매처 등을 준수토록하여, 생산자조직과 협력하여 상품화(선별, 포장 등) 및 판매마케팅을 수행한다. 농산물 생산·유통합조직은 지자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5년)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박 경 준
장수군 조합공동
사업법인 대표

첫번째 농산물 생산자 조직으로 동일 품목 생산 5인 이상 농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혹은 출하조합)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연간 2억원 이상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품목별 공선회가 그 사례가 된다.

두번째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출하(출하)하는 농협,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생산자조직 관리 및 생산

자조직원 재배기술지도 등, 생산 경쟁력 강화지원,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출하관리 및 상품화(선별, 포장)를 수행하며, 취급 농산물의 판매권한을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위임한다.

세번째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서 농산물유통을 컨트롤타워 하는 실체다. 생산자조직 및 출하조합 조직으로부터 출하농산물의 판매권을 위임 받아,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년말 원예조합공동법인은 전국에 45개, 출하조직은 361개소 일)

생산·유통통합조직은 통합조직의 거버넌스(구성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산자조직과 출하조합 조직을 참여시켜, 통합조직 운영규칙, 공급관리규칙, 생산계획, 수급 관리계획, 판매마케팅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노조 개혁 갈등 문제

최근 노조 개혁 갈등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면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하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절반 넘는 노조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과태료를 매기고 세금 지원도 없애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나친 옥죄기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 결과는 노조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영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설명했다. 12개 노동조합은 회계 자료 제출요

청에 응했지만, 207곳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2주간 시정기간에도 안내문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회계 감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모두 공표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외부 회계감사도 하고 노동부에 보고도 한다며 정부 요구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자주성의 훼손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은행들 앞다퉀 금리 인하

최근 은행들이 앞다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은행 가운데 금리가 높은 전북은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은행권은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이자장사’로 배탄 불탄다는 비난을 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21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8%,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4.54%로 모두 4%대로 내려왔다.

또 대출 최대 한도도 각 기준 2억 5천만 원과 2억 원에서 3억 원과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 금리를 낮췄다. 이를 적용하면 6개월 변동금리는 5.91

~6.71%에서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5.24~6.24%에서 5.04~6.24%로 낮아진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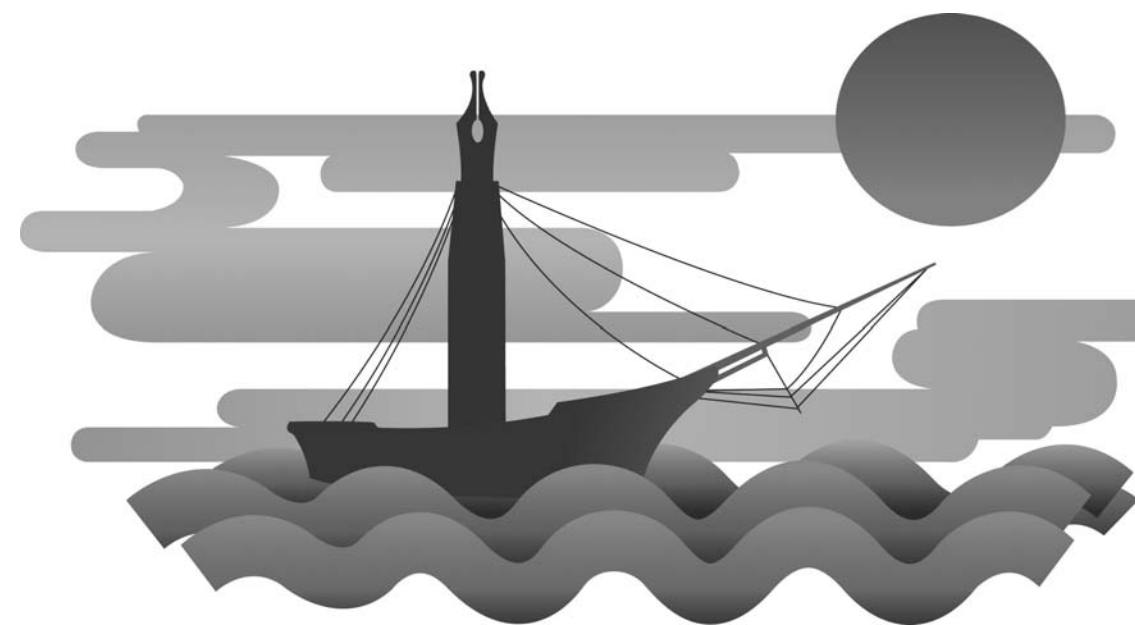
KB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된다.

하지만, 국내 19곳의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전북은행은 아직 뚜렷한 인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10.9%이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5.35%로 국내 은행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